

포스코, 그룹차원 中企상생 협의체 운영

포스코 구매·판매 임원 5명, 출자사 대표 12명,
중소기업 대표 17명으로 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을 하는 상생협력이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상생협력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그룹차원의 상생협력을 주도하고 있다. 포스코는 국내 최초로 그룹차원의 중소기업 상생협력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생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공급사, 외주파트너사, 고객사의 목소리를 경청해 원활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의 롤모델 역할을 할 것이다.

글_ 포스코 홍보팀

포스코가 국내 처음으로 그룹차원의 중소기업 상생협력협의체를 구성하고, 7일 포스코센터에서 출자사 및 중소기업과 함께 '제1회 범 포스코 상생협력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스코 정준양 회장과 구매·판매 담당 임원 5명, 12개 출

자사 대표와 17개 거래 중소기업 대표,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 등 4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포스코의 상생협력 사업계획 발표와 함께 포스코 그룹차원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상생협력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준양 포스코 회장은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해 관계자, 공급사, 외주파트너사 그리고 고객사의 목소리를 경청함으로써 소통과 신뢰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포스코는 Value Chain(가치 사슬) 상의 파트너 모두가 세계 일류제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유한 역량을 총 동원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회장과 함께 상생협력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동주산업 나체홍 대표는 "경영환경의 변화에도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주고 있는 포스코의 상생협력 정책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보다 경쟁력 있게 공급할 수 있



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호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은 "포스코가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과 경쟁력 제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생 협력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해 온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모범적인 상생 협력

활동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협의회는 상생협력 성과 우수 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 등을 통해 상생협력사업을 발굴·확산시키고, 분기 단위로 '범 포스코 상생협력 임원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를 정례화 해 상생협력 내실화와 확산을 위한 세부적인 실천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협의체 위원

- 포스코(5) : 허남석 부사장(구매), 권영태 부사장(판매), 김응규 상무(외주), 윤용원 전무(설비), 황은연 상무(판매)
- 출자사(12) : 포스코건설, 포스코 특수강, 포스코강판, 포스코, 포스텍, 포철산기, 포철기연, 삼정피엔에이, 포스코파워, 포스데이타, 포스메이트, 포스에이씨

중기청, 상생협력 전진대회 개최

중소기업청은 4월 29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기업인, 근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노력한 기업 및 근로자를 격려하고 상생협력의 비전을 새롭게 하는 '상생협력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상생협력전진대회는 현재 당면한 경제위기 돌파 및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분위기를 확산하고 기업인 및 근로자 등의 사기진작과 상생협력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열린 시상식에서는 은탑 산업훈장에 평화정공 이명현 대표이사, 석탑 산업훈장 부호체어원 김노수 대표이사, 산업포장에 성우기전 이상길 대표이사과 삼성전기 송택중 부장이 수상하는 등 171명의 기업인 및 근로자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날 행사에서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로 진입하기 위한 핵심열쇠는 상생협력"이라며 "개별기업이 가진 역량만으로는 위기극복과 미래준비에 한계가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앞으로 대·중소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상생문화 조성을 위해 6월중 상생협력포럼을 출범하고 공공기관의 상생협력참여확대,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류봉길 중기청 기업협력과장은 "이번 행사는 중전 대한상공회의소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각각 추진해오던 '싱글PPM 품질혁신전진대회'와 '아름다운동행상'을 통합해 처음으로 개최된 것"이라며 "그동안의 상생협력은 정부가 주도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토대구축에 중점을 두어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네트워크 간 경쟁시대를 맞아 네트워크를 통한 파트너십 조성 등 시장중심의 자율 상생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중소협력사 수출지원, 대기업이 나선다

업종별 상생위 주관 9개 업종 14개 사업 추진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협력체들의 해외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대·중소기업 수출지원 상생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한국 전력 등 공기업과 30대 대기업, 업종별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상생위), 대·중소협력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참여한다. 지경부의 총괄 하에 상생위가 대기업 및 중소기업협력체를 결합시키고,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시장개척단 파견, 수출상담회 개최, 해외전시회 참여 등에 나서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은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해외 공동진출 수요가 있는 업종 중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업으로 구성됐다.

지경부는 이번 협력을 위해 기계·자동차·전자·중전기 등 9개 업종 14개 사업을 대상으로 12억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세부사업은 다음달 자동차·조선·정보기술(IT) 업종을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연중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각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필요한 때엔 프로그램을 확대·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중소기업 수출지원 상생프로그램 세부사업 (단위: 100만 원)

업종	대기업	세부사업	시기	지역	지원액	예산지원과 통상협력정책과 등
기계	동서·서부 발전	시장개척단 등 3회	6월	중동· 아프리카	180	기업협력과
자동차	현대기아차 등	시장개척단	6월	일본	40	기업협력과 등
전자	삼성·LG 등	시장개척단 등 2회	9월	태국 등	144	전력산업과 등
중전 기기	한전·LS 산전 등	수출상담회 2회	6월 등	이란· 러시아 등	130	무역진흥과
조선	조선협회 7사	해외전시회	6월	오슬로	100	지역투자과 등
유동· 제조	CJ홀 쇼핑 등	시장개척단	9월	중국·베트남	80	무역진흥과
파인 세라믹	삼성·LG 등	해외전시회 2회	10월	일본	190	무역진흥과
철강	포스코	시장개척단	10월	체코	40	무역진흥과
IT	KT·SKT 등	기술교류지원 사업	6~ 9월	러시아 ·미국	300	정보통신산업과

* 자료: 지식경제부. 해외현지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될 수 있음.